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눈물 · 감사 · 영광의 계절

-다음주일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11주년 · 임직식-

11월24일(주일)은 삼중 축복의 날이다. 11년 전 서울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려 오는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새 예배당 입당 2년을 기념하면서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날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우리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진행하며 찬양예배(오후 5시)시에는 집사

13분, 권사 37분의 영광스런 임직식이 있다.

서울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교회임을 온 교회 성도는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 특별 찬양예배 드린다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교회 설립 11주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시편23편을 주제로 한 찬양 9곡을 갖고 오늘 찬양예배 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휘에 박경자 집사, 반주에 안진선(오르간), 백송희(피아노) 대원은 대장 임상헌 장로를 비롯하여 50명이 참여한다.

### 2002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지난 주 2002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10주간의 학사일정을 마치고 종강하였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각 과정을 이수한 성도 149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게 된다. 각 과정별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 성경통독자 시상

매월 3째 주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상을 하게 된다. 오늘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등: 조옥순 권사(8교구)
- 2등: 여현진 권사(8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배영애 권사(3교구)  
이민화 권사(5교구) 최경애 권사(6교구)
- 1등: 차복녀 권사(8교구) 김인순 권사(14교구) 정빈도 집사(12교구)  
유을상 집사(6교구) 최학인 장로(5교구) 구경두 집사(4교구)  
백영희 권사(11교구) 이봉선 집사(8교구) 전용순 권사(9교구)  
피택집사 전원 (김찬웅, 윤운석, 임옥균, 손병석, 하인선, 이태원,  
최홍렬, 조철기, 최양진, 윤성남, 이동만, 최치순, 이양철)

## 농어촌 100교회 후원 접수 시작

-신청은 사무국으로-

우리교회는 매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는 농민들의 도시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농현상 등으로 날로 황폐해지고 있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고향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키는 농어촌 교회를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기 바란다.

2003년도 농어촌 100교회 후원신청서는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 사명자 대회 50일 연속기도회

날짜	교구명
11월18일(월)	6, 12교구
11월19일(화)	2교구
11월20일(수)	8교구
11월21일(목)	9교구
11월22일(금)	10교구
11월23일(토)	11교구

#### ▷ 마태복음 반(13명)

김은태 김찬진 남정열 박두영 박성근 박현주 오충례 이경선 정병무 최용걸 최영인 최형렬 최홍렬

#### ▷ 데살로니가서 반(22명)

김복녀 김영주 김옥순 김태삼 남태영 심은영 양옥자 오유식 윤복순 이경구 이사라 이승희 이혜순 장효옥 조숙자 채경희 최용걸 최일춘 최숙희 하범수 하영인 한광마

#### ▷ 사무엘하 반(10명)

김영주 김옥순 김혜란 박두영 이경선 이규희 이혜순 임상헌 정병무 조정옥

#### ▷ 잠언 반(39명)

고완순 락 숙 김남순 김옥순 김유경 김현주 박경자 박복옥 박성근 박현영 서희숙 손성실 원정순 이경구 이경선 이안화 이영자 이혜순 이현숙 임인선 정봉금 정연택 정영옥 정천수 조상희 조영자 조정옥 주화인 천정화 최근자 최예순 최장수 최중금 하옥봉 함은희 허귀자 허숙희 허현숙 현기옥

#### ▷ 교사양성 반(26명)

장민정 강순원 김연옥 김영주 김유경 김유선 김정미 남태영 박성근 박우주 박윤정 소은희 오세민 오순배 우숙자 이갑진 이규희 이순희 이혜순 장기숙 조동완 차도훈 채지수 최양진 하영인 함은호

#### ▷ 교사계속교육(3명)

나기태 윤숙희 천인숙

#### ▷ 교구일꾼양성 반(13명)

고완순 김경애 김혜란 김혜영 박계숙 박춘자 손성실 안미경 오은숙 윤용미 이경선 이봉선 주경자

#### ▷ 살롬 경로대학(8명)

장정옥 김복녀 김선미 김인순 김중순 박순봉 심재을 최규례

#### ▷ 서울 주부대학(5명)

남태순, 박동희, 박상희, 이인선, 조정옥

### 2교구 가족 소개의 시간

우리 교회는 교구 식구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매월 3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교구 가족을 교회와 성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달은 2교구 순서로 교구 전가족을 소개하고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된다. 연습은 오늘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소선지서 강해-호세아

# 거기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 (호세아 9장 1 - 17절)



이중윤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며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  
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 변증학자 프랜시스 웨이프 박  
사님이 경영하시는 라브리 펠로우쉽 이라고 하는 수양관  
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신학생  
은 물론 알프스 산을 등반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입  
니다. 웨이프 목사님은 이 곳에서 변증적으로 기독교를 방  
어하면서 말씀을 증거 하시는데 그의 저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이프 박사님은 이  
책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매  
우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적자로 아시고 특별히 복  
을 많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  
배도 주시고 특별히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른 민족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혜택과 큰 사랑을 받았습니  
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  
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은혜는  
끝이 났습니다. 이가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  
셨구나"(욥 16:11).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악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과  
거의 이스라엘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  
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의 말씀과 같이 그들 앞에 생  
명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 1. 이스라엘에 임한 형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  
가 옹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옹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1절).

이스라엘은 타작 마당에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에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옹행, 곧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2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풍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끌려가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  
다. 결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을  
당했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  
은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고 낫  
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  
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자기 타작마당의 곡식을 먹지 못하고 술틀의 술  
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영적 옹행을 행했습니다. 타작 마당의 곡식을 우상  
이 주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  
님은 그들의 기쁨을 모두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제일 행복한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

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  
냐"(5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할 자격이 없습니다. 포  
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어도 예배할 처소가 없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만할 때며 하나님을  
만날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됩니다. 우  
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  
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  
때는 기쁨과 모든 은혜가 지나가고 끝이 나는 날입니다.

### 2. 선지자의 타락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  
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7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해야 할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책  
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되니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되 아무런 감동  
도 없고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과수꾼이며 선지자  
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8절).

이스라엘은 동포나 혹은 다른 나라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시비를 합니다. 선지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그물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종교가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창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절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  
리라"(6절).

높은 애굽의 모든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애굽의 우상

배는 전부 높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게 애굽과 더불어 우상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다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공평하신 분이십  
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죄를 심판하  
십니다.

### 3. 끊어진 기도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야  
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소서"(14절).

이스라엘은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  
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저주  
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기도를  
하며 심판을 재촉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  
은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 올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비를 달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 4.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  
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  
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15-17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린 곳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런 길갈이  
이제는 우상인 바알 신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  
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  
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  
으시며 결국 저주받은 인간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이 주어지기까지 선지자  
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선  
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율  
법대로 하면 모세도 죄인입니다. 그도 살인을 했고 노릇 받  
했고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며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대로 하면 우  
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  
음을 죽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  
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2년 한해를 돌아 보며



## 지나간 년수를 세어보니... 백영의 권사(살롬 권사회장)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많은 깨달음과 반성이 생기는 법인데 매년 12월이 되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때 시간의 흐름 속에 묻힌 허실의 시간들, 허물

의 일들을 생각하며 반성과 아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70년 세월이 지나 서울교회에서 권사 은퇴식을 하고서도 살롬권사회의 회장 직분을 받아 봉사하다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시90:14)하는 기도와 함께 평생을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신속히 지나간 년수가 주님의 축복으로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해를 돌아보며 나의 허물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롬권사회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70세 이상 95세 노인들이 계신. 그러나 마음만은 젊은 은퇴권사의 기도회 모임입니다. 시편에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함과 같이 서울교회에서 10년 동안의 수고는 신속히 어느새 지나갔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롬권사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고 살롬권사회가 언제까지도 주님의 노종들로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후대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기억되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모든 염려 주님께..

### 최양예 권사(권사회장)

걱정과 염려로 권사회 회장을 시작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훌쩍 지나갔으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긴장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손을 꼭 잡아주셨고, 마음 아파할 때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며 다급할 때는 몸을 아끼지 않고 기쁨 마음으로 봉사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울교회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로잔대회, 목회자 세미나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조용히 묵도해 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심을.....!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기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열린 프로그램을 마치며

### 주부대학 4학기를 마치고

#### 남태순 권사(3교구)

서울교회 4학기 주부대학이 종강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대학은

- ①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윤리를 터득하여 건전한 가정을 세우며
- ②건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봉사하는 주부가 되게 하며
- ③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방면의 외부 저명인사와 우리교회 전문직 종사 성도들의 특강은 우리의 지적수준을 더욱 높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부대학을 위해 하루 휴가나 연가를 내서 강의해주시고 교재와 슬라이드를 준비까지 해주셔서 고지혈증과 당뇨병 치료식에 대하여 열강을 해주신 나 집사님을 통해 식품영양학이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활 시간은 컴퓨터, 꽃꽂이, 문예창작, 종이접기, 영어반이 개설되었습니다. 꽃꽂이 시간, 꽃 재료를 직접 사오셔서 꽃꽂이반을 지도해주신 김집사님, 대학강의를 다른 날로 바꾸고 영어반을 지도해주신 장로님께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4학기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것과 종이접기반 선생님이 남편 수술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 많은 분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 살롬경로대학의 발자취

#### 이재운 집사(12교구)

오늘날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기독교 신앙으로 해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살롬경로대학이 어느덧 5학기를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로대학은 매주 목요일 경건회를 시작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로 점심식사 교제를 나눈 후 반별로 나뉘어 취미에 따라 특별활동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께 성경이야기도 듣고

에어로빅으로 굳어진 몸도 풀어보고 정서생활에 필요한 꽃 재배, 종이접기 등을 배웁니다. 더욱이 두꺼운 안경너머로 서투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학생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지식을 넓히며 E-mail을 주고받는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국내 기독교 유적 순례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신 현장에서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을 다시 일깨워보기도 합니다. 2000년 9월 처음 개강예배 시에는 40명이던 학생들이 이종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임 장로님과 왕 장로님의 뜨거운 희생과 교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은 재적학생이 90여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모든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제 12학기 서울 성경대학을 수료하며...

#### 남태영 성도(13교구)

할렐루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말씀과 헌신이 충만한 우리 서울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큰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대학을 개설하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강의 시간 배정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교육위원회에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저녁시간에 오정식 목사님의 데살로니가서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성령충만하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 어떤 것보다 재미났으며 마지막 강의가 끝났을 때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작은 사도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학기를 기다립니다.

## 시편23편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임상연 장로(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벌써 11월의 찬바람이 우리 주위를 스쳐갑니다.

지루한 비바람도 있었고 건디기 힘든 더위도 있었지만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고 때때로 우리를 해하는 주위의 무리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서울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옥같은 찬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각기 다른 감동으로 엮어낸 이 찬양의 시간에 저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 2003년을 짊어지고 나아갈 자들 (1)



권재현(청년부 신임 회장)

부족한 사람을 예비 뽑아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는 교회학교의 정점에 있으면서 또한 회원 각자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저마다의 일터에서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정작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부 시절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한 달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 보아 왔던 서울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과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부는 이러한 어른들을 따라 가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부딪히면서 서울교회 청년부에 가장 적합한 집회와 말씀훈련의 과정을 찾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도구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임원들이 하나되어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원들 모두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밀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일과 청년들과 또한 청년부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장이 되어서 사회에서 지친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격려 받고 회복되는 안식처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시작된 넉넉한 사랑으로 청년회원들 각자가 넘치게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덮으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무 능력 없이 쉽게 상처받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힘있는 실천으로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된 병사를 만들어 내는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청년부가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터전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2003년 청년부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황지영(청년부 신임 부회장)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2003년 한해동안 청년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에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청년부를 영적 질서대로 섬기고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이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제 인생이 제 것인양 살아왔던 제가 부회장 후보로서 투표함에서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과 "2003년도 귀하게 섬겨주세요."라는 글귀가 써진 종이를 집었을 때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저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으로 직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에 음식과 운동,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몸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세요. 모두 건강하시도록 기도 드려요.

## 겨울철 노인 건강

### 정옥의 집사(3교구)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들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10%선을 차지함에 따라 성인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료에 의하면 40대 이상 성인이 잘 걸리는 성인병 가운데 발병률이 가장 높은 핵심 질환은 단연 고혈압, 당뇨병과 동맥경화증입니다. 고혈압에 오래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동맥경화증이 발생되고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당뇨병이 잘 발생하는데, 사실 당뇨병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성인병은 마치 동맥경화증이라는 중심 톱니바퀴를 가운데 두고 고혈압과 당뇨병의 두 톱니바퀴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이뤄 뇌졸중, 정신장애, 신경계질환, 골·관절 질환 같은 병도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위의 3대 성인병으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대응책보다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칙적이고도 균형 있는 식생활, 알맞은 운동, 적절한 휴식을 위해 노력하고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식생활의 경우 대개 나이가 들수록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침 또는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1일 1식 또는 2식 주의는 오히려 과식

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정상체중을 웃도는 과체중은 물론 일정치 못한 식사패턴으로 만성 또는 급성 위장염이나 소화성 궤양, 과민성 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식사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하루 세끼 식사를 실천하고 산성 및 알칼리성 식품, 육류와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많이 걷고 근육단련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운동량이 저하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노인에게는 골 수축이 흔히 나타나며 골량감소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이 충분한 시간에 매일 최소한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걸도록 하며 결코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종일 누워 있는 것이 휴식은 아니며, 여기에는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수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사는 날까지만 건강하게 사서 아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

소에 음식과 운동,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몸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세요. 모두 건강하시도록 기도 드려요.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9일(화) 한국 토착위원회 7차 신학 심포지움을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 신용식집사(13교구) (주) 르본 본사 이전 549-4582
  - 이사: 이우상집사 전복례집사 경기 용인시 구서지구 벽산아파트 113/1505 전화:031)890-5171
  - 이송선 성도(11교구) 11월22일 석사과정 졸업연주회(오르간)
  - 20일 하영수 장로 필로스 빌딩 입주 예배
  - 22일 이기찬 성도 리딩타운 어학원 개원감사 예배
- ☞ 금주의 식사제공: 정병우 장로 박경연의권사 가정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연말 연시를 보람차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